
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자	2024. 4. 10(수)	담당자	케이북수출지원팀 안혜진
첨부파일	관련 사진 1부.	연락처	063-219-2862 ahj@kpipa.or.kr

##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BCBF 2024

### 한국 출판사에게 비즈니스 미팅 지원

-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지식 재산권(IP)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상담관 운영

-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원장 김준희, 이하 출판진흥원)은 K-북 해외 홍보 및 수출 지원을 위해 ‘2024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(Bologna Children’s Book Fair 2024)’에 4월 8일(월)부터 4월 11(목)까지 참가하여 수출 상담관을 운영한다.
- 수출상담관(128㎡)에서는 이금이 작가를 비롯해 올해 ‘볼로냐 라가치상’ 우수상을 받은 최연주, 서현 작가 등 3인의 대표작을 전시해 알리고 국내 36개 출판사가 위탁한 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한국 출판사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공간 및 통역을 제공한다.
- 전시 2일차 기준 약 5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K-북 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미국 <WWNorton>, 이탈리아 <Quinto Quarto edizioni>, 스페인 <Libros Del Zorro Rojo>, 프랑스 <Cambourakis>, 일본 <Kaisei-Sha Publishing company> 등 약 16개국 해외 바이어가 한국 출판사 및 수출 전문가와 미팅을 가졌으며, 특히 옛눈북스『모 이야기』, 문학동네『곰곰 걷다』, 윌에디션『접으면』등 도서에 큰 관심을 가졌다. 이날까지 수출상담관은 상담건수 94건, 887,000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루어졌다.

- 한국 출판사 중 옛눈북스는 ‘미처 부스를 마련하지 못한 출판사를 위해 상담공간과 통역을 제공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, 한국 그림책과 K-북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되길 바란다’ 고 하며 출판진흥원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.
- 출판진흥원은 금번 수출상담관 운영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K-북 홍보에서 더 나아가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지식 재산권(IP) 수출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.

【첨부자료】 관련 사진 1부. 끝.

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케이북수출지원팀 안혜진 주임(☎ 063-219-28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